week 43 누가복음 13장-사도행전 12장 이름: "말씀"과 함께 열매맺는 7차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통독

10월21일 월요일

누가복음 13장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본장 1-5절에는, 두어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 몇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죽은 자들이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들의 죽음이 남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 )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4장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본장 15-24절에는 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청함을 거절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 잔치에 가지 않았나요?

*처음에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한 자들의 핑계는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였다가는 우리가 보낼 영원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장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본장은 같은 메시지를 담는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도 용납하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다음 3가지 비유의 내용을 찾아 써 보세요.

1) 3-7절: 잃은 양 비유
2) 8-10절: 잃은 ( ) 비유
3) 11-32절: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

16장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본장은 특별히 돈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의 비유 등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에 버금가는 또 다른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 )과 ( )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0월22일 화요일

17장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본장 1-4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과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 )을 더하소서." 라고 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8장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본장 31-34절에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인 제자들의 모습이, 35-43절에는 몸은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어 기록되었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 )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눈은 뜨고 있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수 있으면서도, 정작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19장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본장 11-27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 열 므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 속의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 은 열 므나를 종 10명에게 나눠줍니다.(한 므나는 노동자의 3개월 임금) 그가 다시 돌아와 종들을 불러 결산할 때, 10 므나와 5 므나를 남긴 종에게 준 상은 각각 무엇인가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20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본장 19-26절에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편인 것처럼 가장하며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가이사의 것은 ( )에게, 하나님의 것은 ( )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국가의 세금에서 그리스도인이 면제될 수 없음을 가리킴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10월23일 수요일

21장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본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 ).
2)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 ).

22장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본장은 유다의 배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그의 메시아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추측하지만, 성경은 그가 돈을 사랑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요 12:6).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본장에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3절)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 욕심이나 불만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을 경계합시다.

23장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본장은 예수님이 심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당시를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 4절: 내가 보니 아 시람에게 죄가 없도다.

2) 14절:

3) 22절: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르기보다는, 다수의 편에서 악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가룟 유다와 함께 인류 역사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23-25절).

24장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았던 여인들이 열한 제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으나, 빈 무덤에 혼자 달려가 살펴본 제자는 누구였나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도 함께 갔다고 기록합니다)

week 43 누가복음 13장-사도행전 12장

"말씀"과 함께 열매맺는 **7차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통독**

10월24일 목요일

지난 고난주간에 요한복음을 읽었으므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소개하였고, 그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 강림과 말씀 전파로 교회가 확장되는 초기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와 믿는 무리와 함께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12-14절)

이들은 또한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될 사람을 뽑기 전에 무엇을 하였나요?(24절)

2장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에서(1장),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은 3,000명이 넘는 교회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도의 ( )을 받아, 서로 (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 )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보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3장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후, 베드로는 그의 설교(11-26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2가지 이상 써 보세요. (13,14,15,22절)

4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못 걷는 자를 일으킨 일(3장)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서게 되었으나, 곧 석방되어 예루살렘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며(23-31절), 교회 공동체는 더욱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 중 자기 재산을 바쳐 공동체에 드린 한 사람이 소개 되는데, 그는 누구인가요?

*격려하고 위로를 잘 하고, 자신은 숨기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성품을 보고서,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10월25일 금요일

5장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나바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와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팔아 그 일부의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으나, 일부를 드렸음에도 전부를 드렸다고 속였습니다. 아마도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모두 바쳤다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3절,4절,9절)

6장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넘쳤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지만(1절), 여전히 문제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의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갈등이 있어, 사도들은 이러한 봉사의 일들을 전담할 집사 7명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세워질 집사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집사로 세워지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회계업무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세워져야 하는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십니다.

7장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집사들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관통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의 마지막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원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하게 되었나요? (51-54절)

8장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1,3절) 결국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집사와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1절).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4절)

*사도행전 1:8절 말씀에 따라,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전해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10월26일 토요일

9장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본장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은 세계선교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시민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할 때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 )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본장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큰 전환점을 기록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경건한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도 놀랍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푸나요?

11장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부어진 일을 소상히 설명하였고(4-17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18절). 이와 더불어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 특히 헬라인들에게도 전파되었는데(19-30절).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기 안디옥 교회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41~54년) 때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흉년이 예언되었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유대 교회를 위해 모금을 하여 사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성숙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안디옥 교회가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12장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로마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 아그립바 1세(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헤롯 대왕의 손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나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